

작한 목자	천주교 싱가포르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fice Blk A3-7, 98 Hougang Avenue 8, S538791	: 사도 요한 사목회장: 최 수 사도 요한
------------------	---	----------------------------

사제관: 6925-7873, 사무실: 6288-9771, 팩스: 6288-9551, <http://cafe.daum.net/kccsg>

일 미사	: 오후 2시(대성전) (특전미사): 5시 30분 중고등부·청년 미사, 장소: 오디토리움 *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 (토)	: 교리 오후 3시, 미사 4시 중고등부: 교리 오후 4시, 미사 5시 30분 주일 12시 30분, 수·목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평일 미사	시간: 화/오후 7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성당	고 해 성 사	평일: 미사 전 후 고해실(A2-8) 주일: 미사 30분 전 성전 고해소.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 교회는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며 그들이 하루빨리 정화되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간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두 예외 없이 맞이할 죽음을 생각하며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도록 결심해야겠습니다.

11 교황님의 기도 지향 < >

유혹을 받는 이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관심과 사랑을 찾고, 생명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빈첸시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움 주신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3:27)

* 문의: 빈첸시오 회장 이영학 시몬(9619-6683)

* 후원 계좌: PARK JAEWOO OCBC 543289292001

인터넷 교리 안내

비자 교리 <http://school.catholic.or.kr/cte/roompass.asp>

견진 교리 <https://school.catholic.or.kr/3217e>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사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30주일(10월26일) 주일헌금 \$1,195.

감사헌금 내신 분 강웅식 안토니오·최지선 가브리엘라 \$200,

송종희 마크리나 \$600, 조민경 마리안나 \$300.

교무금 내신 분 (10월 25일 ~ 10월 31일)

김태영 바오로 11,12월, 김형석 시몬 10,11월,

김희석 아욱센시아 3-12월, 박순덕 마리아 10-12월,

성은경 아네스 1-12월, 오민경 안젤라 8,9월,

오석남 프란치스코 3-10월, 이리라 비비나 11월,

이상은 요아킴 11월, 이수아 비비안나 5-10월, 장지수 안젤로 10월

조길환 아우구스티노 10월, 조주현 바오로 10월.

13 \$9,170.

무금 감사헌금 입금 계좌: DBS 113-008886-3 PARK JAEWOO

* 온라인 송금할 때 입금자 이름을 꼭 기재하거나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사무실과 소성당 이용 시간

일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수,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점심시간: 12시~1시).

토요일 : 오후 1시 ~ 9시, 주일 : 12시 ~ 5시

* 소 변경이나 귀국할 때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례자 수(지난 주)

26()	일			
2:00	28(화)	29(수)	30(목)	31(금)
149	18	35	15	21

* 가족 : 김상현 아네스·신상호

11월은 '위령 성월' 입니다.

'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형제자매를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인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이틀 날에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11월 사목평의회

11 2일(주일) 미사 후, 장소는 A2-8입니다.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안내

11월은 위령 성월이며, 11 2일(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합동위령미사로 봉헌합니다. 미사 시작 전 1시 30분부터 연도로 시작합니다.

성령기도회 "말씀과 함께" Zoom meeting 안내

* 일시 :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저녁 8시 - 9시

* 주제 :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 강사 : 안효철 디오니시오

* Zoom ID : 504 043 9905 PW : 1 2 3 4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특강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신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만남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 모집 안내

저희와 함께 학생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5시반 미사 때 오사거나 아래 아이디로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세례 받은지 1년 이상 된 청년 (20세 이상)

* 문의 : 교감 임소현 레온시아 (카톡 아이디: shyim0128)

저 자 씨

◆제1601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5 11월 2일(다해)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빛속의 장례 행렬칼 슈트리트만
(Carl Strathmann, 1866~1939)
1913, 캔버스에 유채, 101x129cm
런바흐하우스 미술관, 독일 뮌헨

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려가시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제 1 독 서 기 19,1.23-27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 계심을.>

화 답 송 주 님 은 나 의 - 빛 나 의 구 원 - 이 시 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자비를 베푸시어 응답하소서.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 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 2 독 서 마 5,5-11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 음 환 호 송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 - - 야

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이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복 음 마태 5,1-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오늘의 성가 입당송: 227 봉헌: 212 · 513 성체: 437 · 157 파견: 27 (성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이’ / 누구의 어떤 면?

홍길 미카엘 비안네 신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겸 사회복지회장



교회가 전통적으로 3대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배려한 날이기도 한, ‘죽은 모든 이를 위한 위령의 날’이다. 교회는 여러 대의 미사를 봉헌하면서, ‘죽은 모든 이’를 위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가?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지 않는 한 오래 기억하지도, 그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도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본다.

아인슈타인은 저능아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저능아로 기억하지 않는다. 천재 물리학자로 기억할 뿐이다. 처칠은 낙제생이었다. 그는 60세까지 실패만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으로 기억할 뿐이다. 세르반테스는 외팔이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돈키호테의 저자로만 기억할 뿐이다.

「우리 시대의 동화」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은 단편적이고 때론 극단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변하지 않아, 어떤 때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내로남불’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탓이 아닌 남 탓’만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은 모든 이’를 통해서, 또 ‘죽은 모든 이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지녀야 할 삶의 모습을 묵상해 보는 날이다. 내가 아는 누군가의 특별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아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내가 바라봐야 하는 ‘죽음’과 ‘죽은 이’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날이다.

오늘 3번의 위령 미사 독서와 복음 말씀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치우쳤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철학과 신앙을 재정립하여, 오늘의 기억과 기억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죽은 모든 이’를 좀 더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리상식] 고해성사의 근거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고해성사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요한 20,23 참조).

고해성사는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주님께 받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는 많이 변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통하여 초대 교회가 고해성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죄를 지은 이들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뒤(1코린 5,13참조) 교회로부터 사죄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2코린5,7-10 참조). 처음 수 세기 동안은 용서를 받기 전에 여러 해 동안 공적 보속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동방 수도회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사적인’ 속죄의 절차를 유럽 대륙에 전하였습니다. 이후 고해성사는 참회자와 사제 사이에 비밀리에 행해지게 되었고, 일생에 한번만 받던 것도 자주 반복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여 용서받은 관습도 단 한번의 성사 거행으로 모두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고해성사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1447항 참조).

날

11월 2일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이날은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영혼들이 빨리 정화되어 복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위령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죽은 이를 기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기일에 고인 무덤에 모여 그를 추도하고 헌주하며 음복을 나누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때로 여겨지는 2월 13일부터 22일까지는 죽은 이를 추모하는 위령제가 거행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관습을 받아들여 4세기부터 베드로 사도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것이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와 축일이 되었습니다. 죽은 이를 기리는 이교 관습이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 수용된 예입니다.

교회가 초기부터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강조했음에도 위령의 날이 공식 전례일로 정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중세 초기 수도원에서 세상을 떠난 수도자들을 기억하는 관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비야의 성 이시도로(+636년) 시대 스페인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을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로 지냈습니다. 한편, 998년 클뤼니 수도원의 5대 원장인 오딜로(+1048년)는 자기 관할 아래 있던 모든 수도자에게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을 지내고, 그다음날인 11월 2일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시간 전례(성무일도)를 바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령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일이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위령의 날은 아직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령의 날은 모든 성인 대축일과 연결되어 삶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성취될 구원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위령의 날은 전례적으로 1순위 등급이어서 연중 시기의 주일보다 앞섭니다. 또한 이날 모든 사제는 세 번의 위령 미사를 드릴 수 있는 특전을 받습니다. 이 특전은 15세기 스페인의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시작되었고, 1748년 교황 베네딕토 14세(1740~1758년 재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베네딕토 15세(1914~1922년 재위)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수많은 전사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모든 사제에게 이 특전을 주었습니다.

위령의 날을 중심으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묘지를 방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은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영적 조건으로 고해성사를 보고, ② 성사적 조건으로 영성체를 하며, ③ 기도 조건으로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제124회 사도골프 (2025.10.25.)



제124회 사도골프 즐겁게 잘 마무리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우분들 감사합니다. 기획, 준비, 진행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해주신 모든 운영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 현금기부, 바우처, 소중한 상품을 후원해주신 교우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김선호 요한보스코, 김영수 미카엘, 김현길 안드레아, 김희영 벨라멧다, 박은숙 세실리아, 박준필 올리아나, 심대용(예비자), 이상은 요아킴, 이영학 시몬, 조호준 프란치스코, 최수 사도요한, 한영주 엘리사벳, 함혜숙 헬레나, 황레오 레오, 프렌즈 골프]